

PRESS-KIT

노바렉스 기자 간담회



자연을 연구하는
글로벌기업

NOVAREX

기자간담회 Press Kit

노바렉스

건강기능식품 개발/제조 독보적 기업, 코스닥 상장 통해 글로벌 시장 석권할 것

PR Point

Public Relations

노바렉스 강병규 차장
Tel : 02-587-0019

IR큐더스 김창훈 매니저
Tel : 02-6011-2000 *116

IR큐더스 김물결 선임
Tel : 02-6011-2000 *176

IPO Summary

증권신고서 제출	2018.10.08	
수요예측	2018.10.30~31	
청약	2018.11.05~06	
상장(예정)	2018.11.14	
공모예정가	19,000~24,000원	
공모주식수	1,200,000주	
총 공모예정금액	228억~288억 원	
상장예정주식수	9,250,940주	
공모 후 주주구성	최대주주등	43.8%
	기타주주	40.4%
	공모주	10.8%
	우리사주조합	2.2%
	벤처금융	1.8%
	전문투자자	0.6%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0.4%

Contents

1.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2
2. 노바렉스 기업 소개	4
3. Appendix	8

▶ 압도적인 원료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

-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신약' 개별인정 업계 최다 35건 보유
- CJ제일제당, 종근당, 일동제약, 암웨이 등 각계 190여 고객사 확보
- 연 350여 제품 생산: '전립소', '피부생유산균', '소포라퀸' 등 스테디셀러 다수 보유
- 오창 1, 2, 3 공장서 모든 종류의 제형/포장 진행: 고객사별 다각화된 니즈 충족
- 지속적 성장 끝에 2017년 매출액 809억 원, 영업이익 99억 원 달성
- 2018년 상반기 매출액 516억 원, 영업이익 62억 원 기록... 사상 최대 실적 전망

▶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 차별화된 경쟁력 지닌 기업 성장 환경 조성

- 빠른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건강수명 연장 욕구 확산
- 헬스케어 3.0 시대, 사후 치료 대신 사전 질병 예측 및 예방 트렌드 강화
- 2016년 개인 유전자 검사 합법화: 사전 질병 예측 및 예방의 실질적 확대
- 비만/뷰티/영양보충 등 건강기능식품 섭취 목적 및 연령대 다각화
-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 연평균 7.3%씩 성장해 2020년 6,395억 달러 규모 전망

▶ 코스닥 상장 통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Top-Tier로 도약

- 오송 신공장 구축으로 생산 CAPA 2배 확대, 자동화율 34%→80% UP
- 2022년까지 25건의 파이프라인 대기... 2019년 개별인정원료 7건 개발 예정
- 풍부한 파이프라인 바탕으로 고수익성의 원료 판매 및 ODM 사업 강화
- 동남아, 중국 등 성장 시장에 원료 및 자사 브랜드 상품 판매 확대
- '렉스플라본'을 시작으로 미국 FDA 원료 등록 가속화해 세계 시장 지배력 강화

단위: 백만 원

구분	2018.1H	2017	2016
매출액	51,633	80,854	77,126
영업이익	6,158	9,898	10,274
당기순이익	5,402	7,953	9,196

주: K-IFRS 기준, 연결감사보고서

1.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코스닥 상장 앞둔 노바렉스,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Top-Tier 될 것”

- ▶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신약’ 개별인정 35건 보유... 국내 업체 중 최다
- ▶ CJ제일제당, 종근당, 암웨이 등 매년 190여 고객사의 350여 제품 제조, 다수의 스테디셀러 보유
- ▶ 오송 신공장 구축 및 풍부한 원료 파이프라인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할 것

[2018-10-31] 노바렉스가 코스닥 입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를 개막한다.

건강기능식품 개발·제조 No.1 기업 노바렉스는 31일 여의도에서 이상준 대표이사 및 주요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공개(IPO)를 공식 선언했다.

2008년 설립된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ODM/OEM 전문 기업이다. 단순히 주문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닌, 원료부터 직접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하는 데 강점이 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개별인정원료다. 개별인정원료는 바이오 산업의 신약과 같은 기능성 원료다. 노바렉스는 35건의 국내 최다 개별인정 건수를 보유하고 있다.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회화나무 열매추출물(렉스플라본)’, 전립선 건강을 개선하는 ‘쏘팔메토 열매추출물’, 기초대사량을 높여 체중 조절을 돕는 획기적 원료 ‘잔티젠’ 등이 대표적이다.

아낌없는 R&D 투자가 원료 개발을 뒷받침한다. 노바렉스는 석박사 15명을 중심으로 총 34명의 자체 R&D 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연구소기업인 ‘노바케이메드’를, 연세대학교와 합작법인인 ‘노바케이헬스’를 설립해 원료 발굴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또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과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년 10건 이상 국책과제 수행 및 개별인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생산 인프라와 품질 관리 역량도 눈길을 끈다. 오창의 세 공장에서 연질/경질캡슐, 정제, 구미/젤리 등 식약처가 지정한 12가지 제형과 다양한 포장용기 제조를 소화한다. 세 공장 모두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및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인증을 획득해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보증 체계를 갖췄다.

건강기능식품에 집중된 경쟁력은 연간 190여 고객사의 350여 제품 제조로 이어졌다. CJ제일제당, 대상, 종근당, 한국야쿠르트, 암웨이 등 식품대기업과 유명 제약사, 네트워크마케팅기업까지 아우르고 있다. CJ제일제당 ‘전립소’와 ‘피부생유산균’, 애터미 ‘소포라퀸’은 업계에서 입증된 스테디셀러다. 2012년엔 미국 GNC와 호주 블랙모어스(Blackmores)의 한국 독점위탁제조업체로 선정됐다.

지속적 성장 끝에 2017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809억 원, 영업이익 99억 원을 달성했다. 2018년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516억 원, 영업이익 62억 원이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33.3%, 51.2% 증가한 기록이다. 2018년은 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 후 건강기능식품 산업 성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다. 사후 치료에서 사전 진단 및 예방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고령화와 환경 이슈가 심화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2015년 4,347억 달러에서 연평균 7.3%씩 성장해 2020년 6,39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 오송에 신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2019년 착공, 2020년 본격 생산이 목표다. 생산 CAPA를 2배로 늘려 글로벌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고, 전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자동화율을 현 34%에서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원가 절감 및 생산 효율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글로벌 수주를 확대해 바기닝 파워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풍부한 파이프라인도 눈에 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5개 원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내년 한 해에만 7개 원료가 개발을 앞두고 있다. 체지방 감소, 피부 건강 등 시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원료들을 집중 개발해, 고수익성의 원료 판매 사업과 ODM 사업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노바렉스 이상준 대표이사는 “독보적인 R&D 역량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기획, 개발하는 회사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확대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적 권위를 가진 미국 FDA의 원료 인증을 가속화해 중국, 동남아 등 성장 시장은 물론 서구 시장까지 적극 공략하고 전세계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핵심축을 담당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노바렉스는 총 120만 주(신주모집)를 공모한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1만9천 원~2만4천 원으로, 공모예정금액은 228억 원~288억 원이다. 30~31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11월 5~6일 청약은 받아 11월 중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 자료문의 : (주)노바렉스 강병규 차장 (02-587-0019)

(주)IR큐더스 김창훈 매니저 (010-8909-4042), 김물결 선임 (010-5104-3756)

<참고자료>

[노바렉스 주요 IPO 일정]

증권신고서 제출	2018년 10월 8일
수요예측	2018년 10월 30일~31일
청약	2018년 11월 5일~6일
코스닥 상장(예정)	2018년 11월 14일
공모주식수	1,200,000 주
공모예정가	19,000 원~24,000 원
총 공모예정금액	228 억 원~288 억 원

2. 노바렉스 기업 소개

■ 건강기능식품 개발/제조에 특화된 No.1 기업

건강기능식품 ODM-OEM 선도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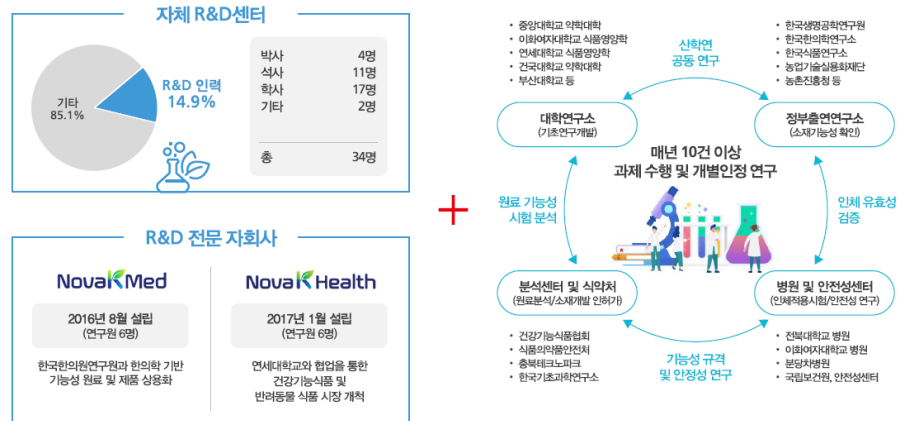
노바렉스는 2008년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개발/제조 전문 기업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막연히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일반 건강식품과 달리, 기능성과 안전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이다.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의 기획부터 생산, 출하까지 전 과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ODM 사업과 완제품 생산에 집중하는 OEM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산업에서 신약으로 일컬어지는 '개별인정원료'를 국내 최다인 35건 보유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190여 고객사 레퍼런스, 350여 개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했다.

독보적인 원료 개발 능력

개별인정원료는 개별 기업이 직접 기능을 입증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정받은 원료를 가리킨다.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회화나무열매추출물(렉스플라본)'이나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쏘팔메토열매추출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각종 시험관실험,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허가를 받으며, 개발 및 등록에 4~7년, 5~1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특혜가 보장된다. 개별인정원료를 인정받은 업체는 그 원료에 대해 최소 6년 간 제품을 독점 생산할 수 있다. 파급 효과도 강력하다. 2013년 개별인정을 받은 다이어트 원료 '잔티젠'은 2014년 셀트리온제약을 시작으로 대상, 애경, 한국야쿠르트, 뉴트리 등 다수 기업에서 제품으로 출시됐으며, 5년째 매출을 창출하는 1등 공신이다.

노바렉스는 개별인정원료 발굴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꾸준히 R&D에 투자해왔다. 현재 석박사 15명을 중심으로 총 34명의 자체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두 개의 연구 자회사도 세웠다. 2016년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연구소기업인 '노바케이메드'를, 2017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합작법인인 '노바케이헬스'를 설립했다. 원료 발굴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다. 또 국내 유수의 대학 산학협력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관련학회와 미국 SSW(Supply Side West), 유럽 Vita Food 등 해외 식품 원료 전시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도표1. R&D 협업 체제



자료: 노바렉스, IRKUDOS

글로벌 수준의 생산 능력 및 품질 관리 역량

글로벌 수준의 생산 인프라도 갖췄다. 오창의 세 공장에서 연질/경질캡슐, 정제, 구미/젤리, 파우더 등 식약처가 지정한 12가지 제형을 모두 생산할 수 있다. 또 병, PTP, 멀티팩 등 포

장 형태를 다양화해 주문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 세 공장 모두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및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인증을 획득했으며, 매년 1회 식약처 실사를 거쳐 GMP 인증을 갱신하고 있다. 원료-반제품-완제품 단계별 품질관리 시험도 진행한다.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 및 보증 체계를 통해 국내 유수의 회사는 물론 미국, 호주 등 외국의 제품 규격과 품질 수준을 충족하고 있다. 실제로 노바렉스는 GMP 규정 위반, 부적용 및 이상사례로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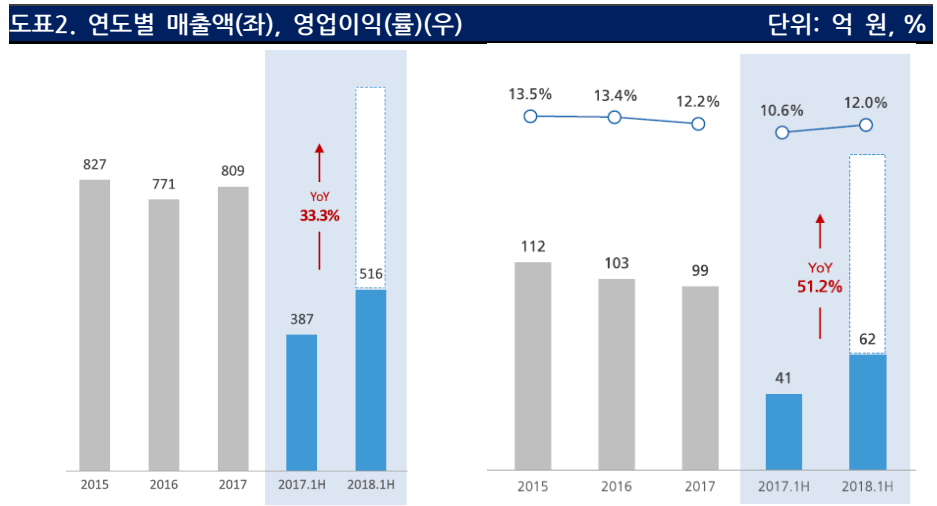
**CJ, 종근당부터 GNC까지...
190여 고객사, 350여 제품 제조**

건강기능식품 개발/제조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은 국내외 다수 고객사 확보로 이어졌다. 노바렉스는 매년 190여 고객사의 350여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CJ제일제당, 대상, 한국아쿠르트, 종근당, 일동제약, 애터미 등 각계 메이저 기업들이 노바렉스의 고객사다. 2012년엔 미국 GNC와 호주 블랙모어스(Blackmores)의 한국 독점위탁제조업체로 선정되며 저력을 과시했다. 5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장기 고객사 비중은 47.8%다.

더불어 여성용, 남성용, 다이어트, 어린이용, 유산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테디셀러를 창출했다. 대표적으로 원료 ‘잔티젠’은 34개 기업의 48개 제품으로 탄생했으며, 그중 ACN코리아 ‘씨4’는 2015년 출시 첫 해에 판매액 62억 원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쏘팔메토추출물’은 CJ제일제당 ‘전립소’로, ‘회화나무열매추출물(렉스플라본)’은 애터미 ‘소포라퀸’ 등으로 제품화돼 4년 이상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2017년 매출액 809억 원,
영업이익 99억 원...
2018년 사상 최대 실적 기대**

주목할 것은 특정 고객사나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고르게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상반기 기준, 최대 고객사의 매출 비중은 15%대로 나타난다. 안정적 포트폴리오 구축은 2017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809억 원, 영업이익 99억 원 달성의 결실을 맺었다. 2018년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516억 원, 영업이익 62억 원이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33.3%, 51.2% 증가한 기록이다. 2018년은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돼, 쿼터점프를 이루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료: 노바렉스, IRKUDOS

의료 패러다임 변화 업고
건강기능식품 산업 성장

■ 건강기능식품 산업 성장 기반으로 글로벌 Top-Tier 도약

향후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업고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과거 헬스케어는 사후 치료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헬스케어 3.0 시대는 사전 질병 예측 및 예방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시대다. 여기에 2016년부터 개인 유전자 검사가 합법화돼, 발병할 질병을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 시장 성장을 가속화했다. 만약 유전자 검사를 통해 40대에 고혈압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는다면, 그 전부터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복용해 발병 시점을 늦추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고령화 추세,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의 대두, 복용 연령층 확대, 비만/뷰티/영양보충 등 수요의 다각화도 건강기능식품 시장 성장에 불을 지폈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낮고 유통채널이 다변화돼 있으며, 상시 복용 가능해 잠재 시장이 훨씬 넓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따르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5년 4,347억 달러에서 연평균 7.3%씩 성장에 2020년 6,395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오송 신공장 설립으로
CAPA 2배 확대, 자동화율 UP

노바렉스는 오송 신공장 설립을 통해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세계적인 건강기능식품 개발/제조 기업으로 비상할 계획이다. 현재 충북 오송 바이오2단지 내 2만 평 부지를 확보한 상태로, 2019년 공사 착수 및 설비 이전을 시작해 2020년 본격 생산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생산 CAPA를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전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자동화율을 현 34%에서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글로벌 수주를 확대해 시장 바기닝 파워를 강화하고, 원가 절감 및 생산 효율화까지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2022년까지 원료 25건 개발해
고부가가치 신제품 출시할 것

풍부한 파이프라인도 대기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5개 원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내년 한 해에만 7개 원료가 개발된다. 특히 체지방 감소, 피부 건강 등 시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 원료들을 집중 개발해 시장 파급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또 순조로운 원료 개발을 기반으로 수익성이 높은 원료 판매 및 ODM 사업을 강화해,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도표3. 연도별 개별인정원료 개발 계획



자료: 노바렉스, IRKUDOS

중국, 동남아, 북미를 중심으로
해외 공략 박차

글로벌 시장도 적극 공략한다. 중국, 동남아 등 성장성 높은 시장과 북미가 주요 타깃이다. 먼저 중국은 원료 수출을 확대하고, 미국 나우(NOW)의 판매망을 통해 자사 브랜드 제품 수

출을 추진한다. 현재 중국 내 기능식품의 허가 및 제품 개발 등록을 진행 중이며 중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식품 박람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지난 6월엔 중국 기업 수주에 처음으로 성공해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동남아는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아시안하이웨이' 자금을 지원받아 집중 공략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장 큰 거래처인 베트남을 비롯, 동남아 각국과 10년 이상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등 성장하는 동남아 시장에 다양한 기능과 유형의 제품을 제안해 해외 시장을 넓힐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영업 및 개발 시스템을 개선해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을 확대한다. 먼저 한국 거주 현지인을 채용해 소통을 원활히 하고, 출장, 영상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인적 교류를 돈독히 하며, 고가상품 시장을 한류, 디자인, 광고 등으로 적극 공략하고, 선인센티브 독립영업부서를 운영해 회사와의 협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북미는 Nutrion LLC를 진출 기지로 활용한다.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SSW 등에 참여해 자체 개발 원료를 소개함으로써 원료 판매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개별인증원료의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 인증도 가속화한다. 2017년 '회화나무열매추출물(렉스플라본)'을 시작으로 2019년 1개, 2020년 3개의 원료가 FDA 허가를 앞두고 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의 인정은 향후 글로벌 원료 판매 및 ODM/OEM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전망이다.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Top-Tier로 도약

노바렉스는 세계 시장을 목표로 원료 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제품 생산 및 영업 역량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에서 세계 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Top-Tier가 되겠다는 포부다.

도표4. VISION



자료: 노바렉스, IRKUDOS

3. Appendix

■ 회사 개요

설립일	2008년 11월
자본금	40 억 원 (2018년 9월 말 기준)
임직원 수	227명 (2018년 9월 말 기준)
사업 분야	건강기능식품 ODM/OEM
본사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1길 94
홈페이지	www.novarex.co.kr

■ 주요 연혁

연도	내용
2009	개별인증 10건(루테인 외)
2010	개별인증 6건(회화나무 외)
2011	벤처기업확인(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1	Probio Pharma(필리핀) OEM 및 파트너십 MOU 체결
2012	블랙모어스(호주) 제품 제조 공급 계약
2012	GNC(미국) 제품 제조 공급 계약
2013	오창3공장(연질캡슐, 연구소) 신축 기공
2013	주식회사 노바렉스로 사명 변경
2014	백만불 수출의 탑 달성
2015	수출유망 중소기업
2015	제2공장 구미라인 증축
2016	연구소기업 (주)노바케이메드 설립
2016	SQF 3 level 인증
2017	연구소기업 (주)노바케이헬스 설립
2017	'충북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2017	RexFlavone 미국 FDA 고시(NDI 972)
2018	2018 대한민국산업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경영혁신 부문 대상)

■ IPO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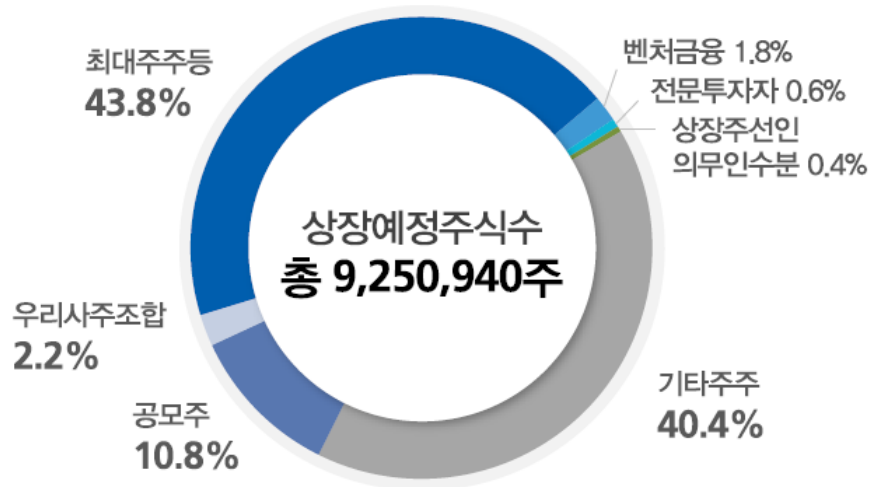
(1) 공모 개요

공모주식수	1,200,000주
공모예정가	19,000원~24,000원
액면가	500원
총 공모예정금액	228억 원~288억 원
상장예정주식수	9,250,940주
상장주관사	NH투자증권

(2) 공모 일정

증권신고서 제출	2018년 10월 8일
수요 예측	2018년 10월 30일~31일
청약	2018년 11월 5일~6일
상장(예정)	2018년 11월 14일

(3) 공모 후 주주구성 및 보호예수 사항



주주명	주식수(주)	비중(%)	기간
권석형*	2,810,760	30.4	2년 6개월
박종진 외 6인	1,744,060	18.9	2년 6개월
이정래 외 5인	346,270	3.7	6개월
우리사주조합	200,000	2.2	1년
벤처금융	166,800	1.8	1개월
전문투자자	55,800	0.6	1개월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36,000	0.4	3개월
합계	5,359,690	58.0	

주(*): 권석형은 NH투자증권(주)와의 협약 및 주식근질권계약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5년간 매각이 제한됨

■ 요약 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8.1H	2017	2016	2015
유동자산	51,072	45,605	40,436	38,824
비유동자산	31,185	26,193	19,771	17,412
자산총계	82,257	71,798	60,207	56,237
유동부채	23,273	18,660	14,607	18,944
비유동부채	645	801	842	985
부채총계	23,918	19,460	15,449	19,929
지배기업소유주지분	57,981	51,876	44,617	36,308
자본금	4,007	3,824	3,817	3,817
주식발행초과금	14,470	11,678	11,579	11,579
기타자본	12	859	777	484
이익잉여금	39,492	35,516	28,444	20,427
비지배지분	358	462	141	-
자본총계	58,339	52,338	44,758	36,308

주: K-IFRS 기준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8.1H	2017	2016	2015
매출액	51,633	80,854	77,126	82,744
매출원가	40,965	63,820	61,472	65,313
매출총이익	10,668	17,033	15,654	17,431
판매비와관리비	4,510	7,136	5,380	6,216
영업이익	6,158	9,898	10,274	11,215
기타손익	7	85	-75	5
금융손익	320	-426	706	297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6,485	9,557	10,905	11,517
당기순이익	5,402	7,953	9,196	9,670
지배기업소유지분	5,506	8,104	9,198	-
비지배지분	-104	-152	-2	-

주: K-IFRS 기준